

# 부상·좌절·눈물...한국 오픈워터 고난의 첫 도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도전이 아쉬움 속에 18일 혼성 5km 릴레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 오픈워터 수영 대표 선수들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도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픈워터 수영 출전 자체가 역사였다. 이들은 여자 수구 대표팀처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 달 여를 앞두고 선발됐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반선재를 비롯해 이정민(안양시청), 정하은(안양시청), 임다연(경남체육회), 백승호(오산시청), 조재후(한체대), 박석현(국군체육부대), 박재훈(서귀포시청) 등 선발된 8명 모두 경쟁선수 출신이다. 급조된 선수단은 야외 경기 경험과 경기 운영능력 부족 등을 드러내며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18일 대표팀은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픈워터 수영 팀 릴레이 5km 경기에 출전했다. 대표팀은 전날 오픈워터 수영 여자 5km에 출전한 반선재를 시작으로 박석현, 정하은, 박재훈 순으로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장맛비, 높은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고전했다.

혼성 5km 릴레이 18위 마무리  
세계대회 첫 출전 호된 신고식  
“이제 시작, 꿈 향해 나아갈 것”

대표팀은 58분 59초 기록으로 전체 21팀 중 18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8명의 선수들은 중도포기 없이 모두 완주에 성공했다. 이날 선수들을 보기위해 비교적 이른 시간(오전 8시)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도 한국 선수들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응원을 펼쳤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오픈워터 수영 남자 5km 경기에서는 백승호가 다른 선수의 팔꿈치에 코를 맞아 호흡 곤란 상태에도 코스를 완주해 목적인 감동을 주기도 했다.

백승호를 대신해 릴레이 경기에 출전한 박재훈은 “경기가 모두 끝나서 후련하다”면서 “마지막에 출전해 앞서는 선수 한 명은 꼭 잡고 싶었다. 막판 한 명을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첫번째 주자로 역을 펼친 반선재는 아쉬움에 눈물을 쏟았다. 반선재는 “어제도 뛰고 많이 힘들었지만 17일 보다 파도도 약해 레이스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었

다”면서 “팀원한테 고맙고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픈워터 수영을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데뷔한 반선재는 다시 경영선수로 돌아간다. 지난해 전주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계영 800m 1위, 자유형 800m 3위, 자유형 400m 3위를 차지한 반선재는 소속팀 광주시체육회로 복귀한다. 반선재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준비할 계획이다.

반선재는 “경영선수로서 우선 서울에서 있을 전국체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오픈워터 수영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픈워터 수영 혼성 5km 릴레이에서는 독일이 53분58초7의 기록으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이탈리아, 미국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독일과 막판까지 혼전을 벌인 이탈리아는 0.2초 차이인 53분58초9로 은메달을, 경기 초반 줄곧 선두를 달렸던 미국은 53분 59초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들은 육안상 거의 동시에 터치패드를 찍은 것 처럼 보여 비디오 판독 끝에 순위가 결정됐다.

오픈워터 수영은 19일 수영 남아 25km 종목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18일 모든 경기를 마친 대표팀은 19일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는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한영 기자 young@



18일 여수시 여수엑스포해양공원 오픈워터 수영경기장에서 열린 오픈워터 수영 혼성 5km 릴레이 경기에 출전한 반선재(오른쪽부터), 정하은, 박석현, 박재훈이 경기를 마친 뒤 믹스트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 프리 콤비네이션 결선 진출

출전 14개팀 중 11위

2009년 솔로 이어 10년만에

대한민국 아티스틱 스위밍 팀이 마침내 결선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

18일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아티스틱수영경기장에서 팀 프리 콤비네이션 예선 경기가 열렸다. 팀 프리 콤비네이션 경기는 최대 10명의 선수가 출전해 자유 연기를 선보이는 단체 경기로, 한국 아티스틱 스위밍팀의 마지막 출전 종목이었다.

백서연(건국대), 김지혜·이가민·김준희(동광고), 이재현·구예모(마포스포츠클럽), 이유진(백석대), 김소진(서울수영연맹), 신정운(한영고), 송민주(중대사대부고) 10명으로 이루어진 아티스틱 스위밍 팀은 ‘정글북’을 주제로 연기를 펼쳤다.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연기인 만큼 선수들은 음악이 멈출 때까지 시종일관 힘차고 열정적인 연기를 펼쳤다.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 역시 선수들의 연기 하나하나에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은 한국 팀은 수행 점수 23.1점, 예술 점수 30.8점, 난이도 점수 23.8점으로 합계 77.7점을 기록, 11위에 올라 상위 12개 팀에게 주어지는 결선행 티켓을 획득했다.

한국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아티스틱 스위밍 결선에 진출한 건 지난 2009년 솔로 자유종목의 박현선 이후 10년 만이다. 김효미 대표팀 코치는 “이 종목만 바라보고 왔다”며 “감회가 남다르고, 선수들에게 큰 손뼉을 쳐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결선에 진출한 한국팀은 아티스틱 스위밍의 마지막 일정인 20일 오후 7시에 결선 경기를 갖는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세계수영대회 아티스틱 스위밍 팀 프리 예선에서 한국 팀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

## 김수지 “광주의 뜨거운 응원서 큰 힘 얻었어요”

3m 스프링보드 결선 실패

“실력의 반도 못 보여줘 아쉬워”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함성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여자 다이빙 대표 김수지(21·울산시청)에게 18일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날이다.

이날 김수지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예선에 출전했다. 앞서 김수지는 13일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15일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에서는 조은비(24·인천시청)와 사상 첫 세계선수대회 결선 진출도 이뤘다. 하지만 김수지가 메달을 딴 1m 스프링보드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 아니다. 싱크로나이즈드는 돌이 함께 하는 종목이다. 그런 만큼 자신의 기량을 평가받고 올림픽 무대까지 노려볼 수 있던 3m 스프링보드에 가장 욕심이 났다.

늘 밝은 표정의 김수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그



는 “실력의 반도 못 보여준 경기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김수지는 5차 시기 합계 256.95점을 받으면서 21위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준결승 티켓을 거머쥔 18위 빅토리아 카이사르(우크라이나·258.60점)와는 불과 1.65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2차 시기 입수 동작에서 큰 실수를 해

37.20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개인전의 경우 상위 12위에 들어 결승에 오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아쉽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희망도 보였다. 김수지는 “(큰 실수에도)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난 것 보니까 확실히 다음 월드컵 경기 때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 경기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기회는 더 있다”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광주에서 큰 힘도 얻었다. 김수지는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그렇고 확실히 응원 이 힘이 많이 됐던 것 같다. 그 응원에 보답을 못 한 게 아쉽지만 항상 국내에서 하는 대회는 새롭고 힘이 난다”며 “정말 서 있으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소리를 많이 질러주셨다. 목도 아프셨을 텐데 광주에서 좋은 힘을 얻은 것 같다”고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보내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김수지는 오는 20일 혼성 3m 싱크로나이즈드 스프링보드를 통해 광주시민들과 마지막으로 만난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여울 기자 wool@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몰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